

전일동향

전일대비 9.00원 상승한 1,391.00원에 마감

2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9.00원 상승한 1,391.0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8.00원 상승한 1,390.0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미국이 주요국과 벌인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에 1395.00원까지 레벨을 높이며 지난 5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 다만, 1,400원에 가 까워질수록 쏟아지는 월말 네고 물량이 하방 압력을 가하며 1,391.00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변동 폭은 5.90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6.61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90.00	1395.00	1387.10	1391.00	1391.40
엔화	930.16	938.92	929.76	936.61	-	
유로화	1601.29	1615.94	1597.57	1605.78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0.07	-5.13	-13.34
결제환율(수입)		0	-4.25	-11.45	-24.5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유로화 약세에...1,39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1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91.00) 대비 2.40원 하락한 1,386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소식을 소화하며 소폭 상승 전망된다. 미국과 EU간 무역협상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해석에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며 달러화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. 지난 며칠간 유로화 약세가 뚜렷함을 보면, 그간 유럽-미국의 금리차와 무색하게 유로화가 과대평가 됐던 것이 미국과 관세 합의를 계기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타났다. 또한, 대중국 관세 유예 조치도 90일간 연장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하며 양국 간 문제를 조율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이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는 환율 상승 압력을 가했다. 한편, 오늘 밤 미국의 2/4분기 GDP, 내일 새벽 FOMC 결과를 앞두고 강보합을 이어갈 전망이다.

다만, 1,390원 초반 수출업체 고점매도 유입과 당국 미세조정 경계감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85.00 ~ 1395.0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6053.95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4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4632.99, -204.57p(-0.4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41.0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533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